

스트리트 댄스에 내재된 ‘자기 고유성’ 탐구

* 이 주 영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춤에 내재된 자기존재 표현
	1. 공동체적 측면
	2. 움직임적 측면
	III. ‘자기고유성’과 스트리트 댄스
	1. 체화된 의식으로서의 춤
	2. 질적 존재로서의 ‘자기고유성’ 사유
	IV. 결론
	참고문헌

* 대구가톨릭대학교 무용학과 시간강사

논문투고일 : 2019.07.27.

논문심사일 : 2019.08.17.

게재확정일 : 2019.09.01.

A study on the 'self-uniqueness' inherent in street dance

Lee, Joo-young · Daegu Catholic University

Because street dance embraces the rapid changes of the times and within them, exists as a cultural product that produces new values and is created, a strong self-concept that is centered and unshaken by others is most important.

A self-concept recognizes a unique self-existence and originates from qualitative art and uniqueness that communicates with the world through art.

Georg Simmel stated that an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beings comes from the aesthetic experience because qualitative uniqueness is constructed only by the artistic experience. The foundation for qualitative beings is the world of sensation through arts. Street dance tries to grant legitimacy for self-existence through a high level of engagement and concentration and this does not cease at evaluation and satisfaction but aims to generate process-oriented qualitative arts and uniqueness by consistently observing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phenomena that occurs within street communities. In other words, the qualitative uniqueness of self-existence that does not identify with others is attained through dance, expanded through creative culture, and artistic manifestations of self-existence that are not identical are pursued.

The qualitative uniqueness of street dance expresses unique, distinct, and memorable movements and fashion but it also allows one to observe their own artistic life more seriously and forms the foundation for more abundant lives. Street dance realizes a unique ideal that actively reveals and pursues determination with regard to what kind of existence one wants to be acknowledged as to generate a creative culture that overcomes prejudices of various street dance genres.

The unique qualitative existence of street dance does not exist in a ceased or completed state but instead, qualitative existence is reinforced within a continuously changing and evolving attitude within the aesthetic experiences.

Such thinking and attitudes does not only expand the world of street dance but also awaken flexible and multi-sensory perceptions and place one's self in momentary situations and establish qualitative uniqueness as grounds for self-existence through lively sensations.

<key words> street dance, hip-hop culture, self-uniqueness, qualitative characteristics

<주요어> 스트리트 댄스, 힙합문화, 자기고유성, 질적 특성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스트리트 댄스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스트리트 댄스는 흑인들 고유의 삶의 양식이 체화되어 나온 예술적 움직임, 문화적 성향, 예술을 통해 분노를 해소하고 평화를 추구하였던 정신에서 기인하며 직관적인 움직임, 강렬한 리듬, 몰입을 통한 창조적인 움직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함께 조화롭게 어우리며 배려하고 나누는 사회적, 정신적 공동체 속에서 누구와 동일시되지 않는 강한 개성을 중시하고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자신의 개성을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써 고유한 자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한 질적 가치이자 미적 목표로 추구하는 스트리트 댄스는 공동체 속에서 이방인임을 자처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춤을 통해 경쟁하는 배틀battle문화, 잼jam문화에 대한 그릇된 시선과 편견은 이러한 오해를 심화시키고 있다.

스트리트 댄스에서 무엇보다도 고유한 ‘자기’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스트리트 댄스문화의 특징인 창조성, 유동성 그리고 대중성 때문이다. 스트리트 댄스는 문화의 흐름과 예술의 변화를 읽고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대중과 교류하여 공유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특정 예술가나 교육자, 선택받아진 행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대중에 의해서 발생되어진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능동적인 자세와 의식으로 참여하는 스트리트 댄스 공동체는 나이, 지위, 인종, 국가를 넘어서서 범지구적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인 참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강한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있는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함께 나누고 즐기며 새로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 확장된다.

즉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특징에서 ‘자기’개념은 문화적 이방임을 자처하는 양적 개인주의적인 ‘자기’가 아니라 정서적 지지가 바탕이 되어진 스트리트 댄스 씬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유일한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고유한 개성과 의식을 가진 질적 존재로서의 예술성과 창조성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즉 스트리트 댄스는 오롯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자 도구이며 상호소통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춤 예술을 통한 고유한 자기성을 지닌 질적 존재를 추구하는 스트리트 댄스의 미

적 가치와 정신은 현대사회의 무한경쟁제도 속에서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과 욕구를 상실한 채 목적과 수단에 의한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해버린 대중들에게 춤을 통한 살아있는 생동감과 강력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로서의 주체적 삶과 실존의 지식이 아닌 기술과 권력에 편협 되어 있는 오늘날 지식들은 과학적 제국주의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타인과 비교당하며 뒤쳐지지 않기 위한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앎이므로 삶과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계를 더 좁게 만들고 있다.

예술을 통해 살아있는 주체적 삶을 사는 것, 공동체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자격을 초월하여 유일한 자신의 의식이 체화된 세계로 존중 받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새로움을 도전하고 창조적인 시도를 지속하여 자기 고유성을 지닌 질적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춤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며 살아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적, 문화적 요구 속에서 스트릿 댄스는 다양한 분야와 활동 속에서 여과 없이 그 에너지를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범지구적 공동체 현상으로 나타난 k-pop문화, 배틀battle문화, 길거리 버스킹busking문화 등 모두 즉각적으로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스트릿 댄스의 감성과 더불어 직관적인 다감각적 자극을 중시하는 대중들에 의해 확장되고 있다.

대중의 평가나 결과가 늘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스트릿 댄서들이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기 고유성을 추구하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스트릿 댄스의 문화적 과정과 결과를 예술의 본질인 순수한 유희성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아닌 자기존재의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신이 나 즐거움을 느끼는 신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유쾌함은 통제되기 어려우며 살아있는 신체를 통해 이루어진 의식은 매우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경험이자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자기 고유성을 가진 질적 존재로 되기 위해서 스트릿 댄서들은 고도의 몰입을 통한 자기집중과 목표지향적인 자기완성을 이루고자 하며 타인과 동일시되지 않는 자기존재의 질적 유일성을 춤을 통해 획득하여 고유한 움직임과 예술세계를 창조하고 살아있는 아름다움으로써 동일하지 않은 자기존재성에 대한 예술적 발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고유성’이 내재되어있는 스트릿 댄스를 이질적인 이방문화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 세계 속에서 예술을 통한 질적 존재로써의 정당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II 춤에 내재된 자기존재 표현

1. 공동체적 측면

수평 지향적 소통구조인 스트리트 댄스씬에서는 종교, 인종, 국가, 나이, 성별을 초월한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던 흑인들의 분노와 좌절을 무력과 폭력으로 표출하지 않고 춤과 노래, 음악을 통해 예술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으므로 누구나, 언제, 어디에서든 함께 참여하는 스트리트 정신을 토대로 한다.

1970년대 우범 지역이었던 미국 동부의 브롱스bronx 지역에서는 자메이카 출신인 디제이 “Herc, K.가 무력행사를 막기 위해 자신의 파티에 댄서들을 초대하여 즐길 수 있는 자를 마련해주었고 파티 안에서 만큼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강조하였다”(정유진, 2015: 50). 다양한 동작들과 움직임들을 통해 스트리트 댄서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독창적인 테크닉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배틀battle문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파티마다 디제이DJ와 비보이 b-boy, MC(랩퍼), 그래피티grafitti 예술가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게 되면서 그래피티로 장식된 파티장에서 DJ들은 두 개의 턴테이블을 무대 중앙에 놓고 브레이크 비트를 만들었으며, 댄서(비보이)들은 이에 맞춰 강렬한 브레이크 비트에 춤을 추었고 “MC는 참여자들의 호응을 유도하여 공연을 펼치기도 한 것이 1970년대와 1980년대 힙합문화라고 불리게 되었다”(박성진, 2017:50).

또한 Bambaataa, A.는 “최초의 힙합 커뮤니티 ‘유니버설 줄루 네이션’의 창시하여 브롱스bronx 지역을 스타일style와 파티party의 명소이자 낙천주의적 공간으로 재 순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정유진, 2015:56). 이러한 스트리트댄스씬의 활동은 주체적이지 못한 ‘타자’의 삶을 살았던 미국 내 흑인 및 유색인종 청년층의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세계관을 표현하는 장으로 스트리트 문화를 전파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트리트 댄스씬이 동일하지 않은 특색 있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서 시도되는 모든 창의적 행위와 도전적인 시도들을 이질적인 행위, 배타적 시선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행위자의 이름에서 비롯하여 춤 용어를 정하는 것도 존경하는 태도 때문이다.

1969년 경 미국 서부 LA 지역에서 탄생한 락킹댄스locking dance는 Camp-

bell, D.이 친구들과 함께 움직임의 하던 중 자신만의 개인적인 느낌으로 정지하는 동작을 주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탄생되었으며 “당시 그 모습을 재미있게 여긴 주위 사람들의 호응 덕분에”(정유진, 2015:61) “그는 ‘락’이라는 하나의 동작을 중심으로 즉흥적으로 움직이고 여러 제스처를 합하면서 춤을 점점 확장시켰다. 어디서든 춤을 췄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그의 춤은 LA 전역에서 유행하게 되었다”(송유리, 2017:19).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스트리트 댄서들은 삶의 예술적 경험을 토대로 상이한 형식들과 형상들을 질료로 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하나의 삶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즉, 스트리트 댄스는 유토피아, 환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방식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춤 예술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세계와 타인에게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주고자 하였다.

자유로운 주체적인 실천과 예술적이고도 창의적인 시도가 무한대로 가능한 이유는 바로 몸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직접적 경험에 기반하는 강한 소속감에서 출발한다.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움직임이 자율감을 신장시키고 자율감이 커지면서 움직임에 대한 그리고 춤에 대한 유능감이 형성된다. 유능감이 형성되면 몸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춤에 대한,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나타난다”(오레지나, 2019:80-81). 즉 예술적 실천으로서의 스트리트 댄스는 절대적이며 통일적인 공간과 시간에서 주어지는 예술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고 교류하고 공존하며 그 속에서 정서적 지지와 응원, 격려를 통해 정신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리트 댄스의 삶의 방식은 공동체의 보편적 동일성과 평등보다는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존재’를 강조하는 데 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성은 스트리트 댄스인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되어지고 발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스트리트 댄스만의 특유의 문화적 속성을 강화한다. 즉, 스트리트 댄스의 ‘자기 존재’는 내적 지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는 것이다. 또한 이 세계에서 스트리트 댄스는 내면적 의식을 초월하여 다른 타인과 열린 공존으로 함께 할 때 성숙해진다.

이렇듯 스트리트 댄스가 춤 행위를 통해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와 시대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적인 가치, 예술적인 삶을 인정받고 동등하고 수평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정당성을 갖고자 하였던 것이다.

2. 움직임적 측면

스트리트 댄스는 본질적으로는 ‘자기탐구’를 기반으로 한 ‘자기표현’의 과정을 통해 의식 있는 자기실현을 완성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스트리트 댄스의 본질적 목표이자 추구되는 정신은 자기 존재의 표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 평가,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함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며 소통하여 보다 나은 개성 있는 춤 스타일과 열정으로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른 댄스 유형과 달리 대부분의 스트리트 댄스는 개성과 고유한 독창성을 장려하고 댄서들은 자유롭게 연출하고 그들이 소유한 고유한 춤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창작하거나 즉흥 연출”(길현정, 2014:296)등을 통해 쇼적인 제스처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즉석에서 나오는 연출과 감각적인 움직임들은 새로운 장르,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음악과 융합되어 창의적인 움직임의 생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스트리트 댄스의 독자적인 문화라 할 수 있는 배틀문화는 한명의 승자가 남을때 까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DJ의 음악에 맞춰 자신의 춤을 겨루는 토너먼트 서바이벌 형식의 경쟁문화이다. 하지만 이 경쟁과 평가에서 단순히 승패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트 댄서들로 하여금 늘 새로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해내고 발전함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댄스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이자 소통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과정 지향적 경쟁을 추구하고 있으며 서로의 춤을 교류하고 공유하며 춤 실력을 발전시키는 미적 경험을 통해 미적 존재를 반영하여 자신의 예술 세계에 미적 동일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여기서 미적 존재란 내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열려 있는 ‘몸’을 토대로 이루어지며 매번 상황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트 댄스에서 즉흥적인 자신의 표현은 본능적이며 무의식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재현이 불가하다. 이러한 스트리트 댄스는 진정한 몰입과 집중에서 발현되며 이러한 발현의 과정에서 우리는 숭고한 ‘쾌’를 감각해낼 수 있으며 여기서 다수의 대중들은 결정적인 관찰자이자 참여자로 역할을 확장한다.

Shusterman, R.은 “대중예술은 즐거움(entertainment)를 비롯하여 랩rap, 록 rock의 감상을 통하여 예술적 형식을 지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보다 육체적 활동과 정감적 본성의 발휘를 자연스럽게 요구함으로써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허정선, 2005:77).

스트릿 댄스는 길 위(on the street)에서 생성되었다는 의미보다는 길에서부터(from the street)으로 시작되는 춤적인 영역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며 이는 곧 다수의 대중들의 일상적 공간(길, 공원, 클럽 등)을 스트릿 댄스를 목격하고 바라봄으로써 즐기고 느끼고 나누는 쾌를 형성하는 새로운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러한 ‘쾌’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때마다 다르게 존재하는 생기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역동적인 움직임에 위해서는 발전된 자기성찰을 통한 탐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기 지향적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은 강한 내적 동기를 유발하게 되며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춤은 자신의 내면을 신체를 통해 드러내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의 근본에서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 춤을 추고자 하는 의지, 춤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거대한 연결고리이며 다층적인 자신을 동시에 표현한다. “행위로서의 무용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 유일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술이다”(한해리, 2018:110). 무용은 인간의 살아있는 ‘신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현될 수 없으며 무용만으로는 우리는 무용을 느끼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몸에 내재된 의식은 곧 존재로 나타나게 되고 이 존재는 사회 속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움직임을 통해 드러나게 한다. “존재와 몸과 움직임은 중첩된 하나로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특징을 갖고 있다”(오레지나, 2019:80).

스트릿 댄스는“폐쇄적이거나 비절제적인 흥분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원초적으로 열린 상태에서 나의 내면을 일깨움으로서 몸, 움직임, 의식이 하나 됨을 추구하고, 사회, 나, 공동체의 일체감을 이루는 신성하면서도 초월적인 움직임이다”(이주영, 2017:187).

이러한 움직임은 나를 이루는 존재 세계의 토대이자 세계를 이루는 본질이 된다. 이러한 본질의 토대는 실천적 자기의식을 통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며 자기만의 고유한 문화적 삶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스트릿 댄스에서 자기 고유성을 지닌다는 것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의 미적 동일성을 의미하며 개인 자신의 속성이 바탕이 되는 개인의 고유한 내적 세계를 이루어 개인이 지닌 자기개념에 따라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개성있는 움직임은 뛰어난 댄서나 아티스트의 예술세계를 탐하고 모방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독자성과 독자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타인과 다른 세계에 놓여 있으며 개개인의 존재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힙합정신을 기초로 한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스트릿 댄스씬은 보편성, 동일성을 추구하지 않으며 개인과 개인 사이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상호 소통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스트릿 댄스에서 ‘자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스타일이라는 의미보다 공동체 삶 속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삶의 가치와 예술적인 자기존재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III / ‘자기고유성’과 스트릿 댄스

1. 체화된 의식으로서의 춤

사회학자 Simmel, G.은 현대세계에서 개인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당하고 혼동되며 주체성을 잃고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적 존재의 특성과 개성, 그리고 유일성을 발전시키고 보존하기가 점차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양적 존재와 양적 개체성이 질적 존재와 질적 개체성에 대해 우위를 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Simmel, G.은 질적 고유성을 지닌 개인 및 개체성의 형성과 발전을 현대 세계에 주어진 중요한 문화적 가치나 예술적 이상으로 내세운다.

특히 Simmel, G.은 이러한 질적 존재에 대한 원형을 소설가 Goethe, J.의 『비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서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질적 유일성은 예술적 경험에 의해서만 구성되기 때문에 질적 존재에 대한 토대는 미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괴테가 추구하는 것은 다른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은 개성에 대한 가능성을 시민세계와 구분되는 예술세계에서 탐구하는 것이다”(하피터, 2016:97). 여기서 예술세계를 이루는 인간의 고유의 개성과 유일성은 삶에서 일어나는 미적 경험을 의미한다.

춤 통한 미적 경험은 자연의 세계나 혹은 이상적인 다른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획득되어지는 경험과는 상이하다. 왜냐하면 신체를 토대로 움직임을 통한 미적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양한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선명해지며 살아있는 ‘몸’을 움직이려는 자기의지와 자기실현을 통해 자신의 예술을 리드미컬한 패턴으로 형상화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적 질서와 체계가 내재되어 있는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다양한 경계를 해체하게 되는 것이며, 통합적인 자의식을 지닌 새

로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오레지나, 2019:82). 인간의 다층적인 자의식 활동 중에서도 미적 경험은 시각적 물리적으로 접근되지 않고 침투될 수 없는 영역인 감각과 지각의 영역에 존재한다. 즉 질적 존재에 대한 토대는 살아있는 신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순수하고도 본능적인 감각의 세계이다.

이러한 자신의 ‘신체’에 내재되어있는 고유한 자신의 감각을 통해 우리는 전체성을 가지고 상호주관성에 의해 소통이 가능해진다. 의식은 무한한 확장을 통해 의식 존재의 현시로서 세계에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춤은 신체가 세계에 속한다는 것은 무용의 세계에 소유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무용의 세계를 자기화, 전유화 하면서 자기성을 보존하면서 무용의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다”(장정윤, 2005:78).

스트리트 댄스는 무엇보다도 자기존재성을 ‘춤’이라는 예술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인정받고, 세계에 드러내는 것을 중요한 질적 가치이자 핵심요소로 이해한다. 스트리트 댄스는 자기의 존재에 대한 고유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체화된 의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인물로 거듭나고자 한다. 또한 자신의 춤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움직임이 그려나가는데 모방과 재현이 아닌 몰입과 집중을 통하여 자신만의 역사를 만든다. 다양한 춤의 장르가 혼재하거나 기존의 움직임을 변형시키는 등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로 자신의 춤에 대한 고유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질적 유일성으로서의 강력한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타인에 존재하는 공동체 속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공감, 교감과 교류를 바탕으로 되기 때문이 가능하다. 공동체 속에서 나란 존재는 출발점이 된다.

Simmel, G.은 인류의 보다 높은 가치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형식에 속해있는 평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스타일과 개성을 지닌 인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전이라는 형태로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스트리트 댄스 공동체는 신분과 지위,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고 불공평한 개인의 기준이나 잣대 없이 있는 그대로의 행위가 가능하다. 스트리트 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함께 즐기고 자유롭게 춤을 주고받는다. 춤을 통해 타인이 지나온 삶을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바라보주며 모든 행위와 과정을 중중하고 배려한다.

스트리트 댄스는 우발적으로 세계에 던져진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되는 보편적 존재가 아닌 특색있고 고유한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데 예컨대, 프리스타일freestyle, 버스킹busking, 잼 문화(jam culture) 등은 기존의 레퍼토리를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방식이 아닌 신체에 내재되어있는 원초적

이며 변형되지 않은 예술에 대한 본능을 끌어내고 개인의 궁극적인 발전에 이르기까지의 스트리트 댄스에 내재된 자기 고유성에 대한 의식의 전체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스트리트 댄스에서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예술적 삶에 대한 가치를 삶의 기반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적 자기의식이다.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의 존재들은 실존적 삶의 영역에서 예술을 통한 미학적 형식화를 실천하며 능동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자기 고유성을 실현하고 유일무이한 스타일을 표현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보다 질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질적 존재로서의 ‘자기고유성’ 사유

스트리트 댄스는 타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회를 인지하고 있으며 타인들 사이에서 자기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때의 나는 생물학적으로 부여받은 젠더, 인종, 종교를 초월하고 초감각적인 ‘나’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의 ‘나’는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타인들과는 달리 이해되는 자기 고유성을 확립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트리트 댄스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느끼게 되며 이때의 모든 행위들은 질적 움직임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이유가 된다.

스트리트 댄스가 이루어지는 시공간 속에서 타인과 세계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질적 유일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은 댄서들은 풍부한 뮤지컬리티musicality, 자발적인 페르소나persona, 예술적 아이덴티티identity가 내재되어있는 A.K.A(as know as) street name 등의 특징과 부합하고 주체적인 한명의 아티스트artist로서 세계와 만나게 된다. 자기 고유성이 내재된 스트리트 댄스는 창의적이며 견고한 자기 존재를 토대로 도전적인 시도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경쟁과 평가 속에서도 자기 확신을 통해 주체적 행위를 가진다. 이렇듯 스트리트 댄스는 개인의 고유한 스타일을 획득하고 공동체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움직임과 스타일을 끊임없이 평가 받으며 질적 움직임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스트리트 댄스에서 ‘자기고유성’을 사유한다는 것은 그저 새로운 무브먼트movement를 창조해낸다는 미시적 관점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현장, 일상적 생활 등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상징화되는 과정이며 예술적이고도 미학적인 경험에 의해서 구성된다.

따라서 스트리트 댄스는 실천적인 삶 속에서 개인의 예술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예술적 경험을 통해 유일한 ‘질적 존재’로 규정될 수 있는 이유는 자율성은 실천

적 이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각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스트릿 댄스는 이성이나 과학적인 논리로써 이해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 종교, 국가, 성별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적이며 수용적이다. “스트릿 댄서들은 자발적인 몰입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주변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스스로가 ‘춤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스트릿 댄스 그 자체에 집중한다”(양승아, 2009:29).

이는 스트릿 댄스가 삶 자체가 되며 본능적으로 스트릿 댄스를 사유함을 의미한다. 특히 스트릿 댄스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되기 때문에 질적 유일성은 자발적인 몰입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듯 스트릿 댄스 문화의 원동력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자기고유성’은 단순히 남들과 다르고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시도로만 이루어지는 춤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기초하는 예술적 경험을 토대로 질적 유일성을 가질 때 진정한 자기 고유성이 확립되며 이러한 자기 고유성은 스트릿 댄스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근거로서 연결된다.

이렇듯 스트릿 댄스는 단순히 거리문화의 소극적 형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일상적 생활 등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상징화되는 과정이며 예술적이고도 미학적인 경험에 의해서 구성된다. 즉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적으로 열린 사고와 또 다른 가능성을 위한 자유로운 공동체 형성의 예술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소수의 공동체나 민족의 고유한 문화의 개념에서 벗어나 동시대적차원의 예술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트리트 댄스에 내재된 '자기고유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스트리트 댄스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속에서 춤 행위를 통해 자신의 독특하면서도 개성있는 고유한 '존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존재적인 가치, 예술적인 삶을 인정받지 못했던 미국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의 유산과 예술적 세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문화적인 통로이자 소통의 수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뛰어난 댄서dancer나 아티스트artist의 예술세계를 탐하고 모방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독자성과 고유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타인과 다른 세계에 놓여 있으며 개개인의 존재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합합정신을 기초로 한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공동체의 보편적 동일성이 아닌 개성에 의해 드러나는 고유한 질적 '존재'를 강조하는 데 있다. 스트리트 댄스의 고유한 질적 존재는 멈춰지거나 완성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태도 속에서 강화되어 진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원동력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질적 고유성은 단순히 남들과 다르고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시도로만 이루어지는 춤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기초하는 예술적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질적 존재로서의 자기가 확립되며 이러한 질적 존재는 스트리트 댄스가 추구하고 있는 자기근거로서의 자기 유일성으로 연결된다. 스트리트 댄스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질적 고유성은 자발적인 몰입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한다.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기실현 이루어졌을 때 '나'는 결코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타인과는 달리 이해되는 독자적인 '자기' 존재가 된다. 독특하면서도 인상 남는 움직임과 열정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의 예술적 삶을 바라보고 풍부한 삶의 토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예컨대 자신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환경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생물학적 젠더, 이름, 선입견, 종교 등에 얽매이지 않으려 한다. a.k.a name 사용을 통해 자신이 어떠한 존재로 인정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으며 고유한 이상형을 실현시킴으로써 양한 스트릿 댄스의 장르에 대한 선입견을 넘어서서 창조적 문화를 생성하기도 한다.

물질적 토대 위에 생겨난 문명과 기계화, 정치, 사회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감정에 솔직하고 적극적이며 직접적이었던 행동과 사고를 추상적이며 소극적이며 관념적으로 변화하고 인간 사이의 기계적이고 물질적이며 비인간적 태도가 존재의 가치를 더욱 부정하고 소멸시키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구공동체의 세계시민으로써 고유한 자의식, 존재성,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 주체적이고 당당한 태도로 세계에 참여하며 능동적이고 유연한 자기실현은 보다 성숙한 사회를 만들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화적 인간으로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에 무용예술은 문화의 조류 속에서 그 장르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융합, 변화, 창조를 거듭하며 시대적 요청에 대해 부응하고 있다. 시대적 요청에 따라 스트릿 댄스는 대중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트릿 댄스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질적 존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으며 존재의 세계를 확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도 공감각적인 시각을 일깨워주고 순간의 상황에 스스로를 놓이게 함으로써 삶의 주체자가 되며 생동감 있는 감각을 발전시키고 존재의 근거로서의 질적 고유성을 사유할 수 있다.

무용예술은 “실제적으로는 사라져 버리는 무대 위의 환영으로서의 춤이라기 보다는 상징화되거나 승화되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개인의 삶에 실제하는 춤이다” (한혜리, 2017:77). 자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감각하며 소통하는 예술이며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통해 축적된 미적 경험이 발현되기 때문에 보다 본능적이며 강한 기억을 심어준다. 자기 존재의 토대로써 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몸을 통해서만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무용예술의 역할은 매우 심화적이며 광범위하며 무용의 미적 체험은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고 그 존재의 확립을 토대로 세계 속에서 당당하고 주체적인 정신과 태도를 통해 권리와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스트릿 댄스에서 자기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인지하여 수용하는 감각적인 수준을 넘어서 대중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자기존재를 드러내고 감각적이고도 예술적인 행위를 추구하여 결국 예술적 삶을 실천하는 고유한 자기를 질적으로 완성하는 행위인 것이다.

- 길현정(2014), “스트릿 댄스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로서의 전략적 발전방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8집 3호**, 293-313.
- 박성진(2017), “팝핀 댄스의 한국 유입과 발전 과정에 나타난 수용 양상 고찰 : 문화 접변 이론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송유리(2017), “미국 락킹 그룹 <더 락커스>가 스트릿 댄스에 미친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 양승아(2009), “스트릿 댄서의 하위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오레지나(2019), “움직임을 통한 지식의 체화”,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30집 2호**, 77-87.
- 이우재(2010), “현대춤의 문화적 대중성과 힙합 춤의 경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이주영(2017), “힙합댄스에 내재된 의식과 소통방식”,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8집 1호**, 177-189.
- 장정윤(2005), “무용하는 신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유진(2016),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워킹 댄스 양식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하피터(2016), “하이데거의 개별화된 자기성 개념: 현존재의 개별성과 짐멜의 질적 개인주의에 관한 고찰”, 한국현상학회, **철학과 현상학연구 71**, 89-113.
- 한경아(2001), “인간의 몸을 통한 존재로서의 자아 표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혜리(2017), “동시대 무용의 가치 전도와 가치 창출”,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권 4호**, 65-78.
- _____(2018), “춤추는 몸의 내재성과 초월성”,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29집 2호**, 107-120.
- 허정선(2005), “리처드 슈스터만의 ‘몸 미학(somaesthetics)’에서의 ‘살아있는 아름다움’”,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Simmel, G., 김덕영(역, 2007), **근대 세계관의 역사**, 도서출판 길.